

상장기업 투자 연평균 35.2% 확대

전경련, 2001-04년 총 투자액 61조8000억원 ... 2006년에는 둔화현상

상장기업들이 4년간 공시한 대형 시설투자액이 연평균 35% 증가해 대기업들이 생산성 제고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투자를 꾸준히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에는 투자액이 2004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1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상장기업의 대형투자 공시를 분석한 <상장사의 시설투자 공시를 통해 본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기간에 상장기업이 공시한 대형 시설투자액은 총 61조8000억원이며 2001-2004년 4년 동안에는 연평균 35.2% 증가했다.

그러나 2005년 1-9월 투자 공시건수는 69건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투자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투자공시금액의 70.8%가 중화학공업에 집중됐으며 서비스업은 28%, 경공업이 1.2%를 차지했다.

2002년 중화학공업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투자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경공업은 내수경기 부진을 반영해 투자수요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전체 투자공시금액의 36.4%에 달하는 22조5000억원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고 영남지역은 투자액 비중이 24.2%, 충청권이 22.7%, 호남권이 4.5%, 기타 지역은 12.2%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지역은 시설투자액이 연평균 72.5% 증가하는 급등세를 보이며 2005년 1-9월 3조9000억원으로 수도권 투자액 3조7000억원을 앞질렀다.

투자목적별로는 생산능력 확충이 84.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물류 5.6%, 연구개발 3.5%, 신사업 진출 2.7%, 효율성 제고 1.5% 등이었다.

투자자금의 조달방식으로는 전액 자체조달이 69.5%를 차지한 가운데 2004년에는 83.3%에 달할 정도로 증가세를 보였고, 투자재원 전액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해 외부차입을 통한 투자를 자제하는 소극적 경영성향이 나타났다.

투자프로젝트의 평균 실행기간은 14.5개월이고 1000억원 이상 투자는 21.9개월로 나타나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재임기간이 평균 2.8년인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 대형투자에 대한 과감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중화학공업, 수도권에 대한 투자편중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투자분위기를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자의 중장기적 투자의사 결정을 제약하는 기업 내부의 단기적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나친 경영참여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0/28>